

삼강차마문화예술제 참도시에서 성료



서장자치구 참도시(昌都市)에서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제 11회 삼강차마(茶馬) 문화예술제가 성공적으로 열렸다. 이번 축제에서는 다양한 문화, 체육,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9월 15일 펼쳐진 개막식에서는 참도의 11개 현(區) 주민 대표들이 춤추고 노래하면서 장내를 한바퀴 돌았다. 열정적인 열바춤과 호매하고 위풍당당한 령탁춤, 그리고 우아한 망강현자춤은 현장에 모인 관광객들과

과 각계각층 손님들에게 참도의 독특한 전통문화와 열정적인 환영을 보여주었다. 이어진 문화공연에서는 노래, 춤, 그리고 상황극의 형식으로 금사강의 흥색 기억, 노강의 문화 전승, 란장강의 고품질 발전을 주제로 한 참도의 력사문화와 경제사회발전의 성과를 생생하게 표현하며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문화예술의 향연을 선사했다. 9월 16일, 예술제는 '문화 + 산업 + 관광 + 포럼'을 중심으로 정부와

기업간 사업간담회, 투자유치 및 문화관광산업 추천회, '모든 것은 동쪽을 향하여'(一切向东)란 배경하의 산업 다각적 발전 사례 살롱 등 세가지 행사를 진행했다. 전국 각지의 기업인 대표, 전문가, 학자들이 참도시 주요 책임자들과 함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참도의 미래 경제 및 사회 발전 방향을 탐구하고 고품질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제공했다.

예술제의 특색 제품 전시 및 판매 행사에는 참도시의 100여개 기업이 적극 참여, 여기에는 자치구 및 시급 농업 선도 기업과 각 향촌의 전문합작사들이 포함되었다. 전시품은 500여종의 특색 제품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었는데 고원 특색이 뚜렷한 청맥(靑稞) 제품, 야크 고기 제품, 포도주, 송이버섯 등의 농산물과 탕카(唐卡), 목각 등 정교한 민족 수공예품이 전시되어 참도의 독특한 자원 우세와 심오한 문화 다양성을 충분히 드러냈다. 행사 기간 현장에서는 시종 활기차고 열렬한 분위기 속에서 시민들에게 풍부한 제품을 제공하며 참도 특색 제품의 인지도를 더욱 높였다. 통계에 따르면 전시 기간 총판매액은 324만원에 달했다. 2015년 처음 개최된 삼강차마문화예술제는 10년간 중화 전통문화를 발양하고 각 민족간의 교류 및 융합을 촉진하는 지역 문화 행사의 중요한 전략적 플랫폼으로 발전했다. 참도시문화관광국 관계자는 "예술제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참도의 독특한 문화관광자원과 풍부한 민속 정서를 생생하게 전시하고 도시 브랜드의 영향력과 관광의 핵심 매력을 크게 증가시켰다."고 소개했다. 또한 문화와 관광의 심층적 융합과 산업 수준의 도약 촉진, 무형문화유산의 활성화 및 전승 강화, 민족단결 증진 등에서도 대채 불가능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중국서장신문넷

몽골식 씨름 부호 속에 깃든 몽골족의 기백



초가를 내몽골초원에서 나다무대회 부호(博克, 몽골어로 씨름) 시합이 열리고 있다. 재판의 호각소리가 울리자 부호 선수들은 상대의 씨름복을 움켜잡고 첫번째 움집임에 살짝 힘을 주다가 갑자기 강한 힘으로 날카로운 '어깨로 매어던지기'(过肩摔)를 시도한다. 이때 상대를 땅에 매어치며 즉시 승부가 결정되자 경기장은 순식간에 열기로 가득했다. 부호는 몽골족의 '남자 삼예'(男儿三艺) 중 하나로 그 역사는 서한 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약 2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 전통 스포츠는 나이와 체중 제한이 없어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규칙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선수들은 규정된 동작으로 밀치기, 당기기, 휘둘리기, 걸기 등의 기술을 선보는데 무릎 이상의 신체 부위가 땅에 닿으면 패배하게 된다. 이러한 포용성과 공정성 덕분에 부호는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전통에 따르면 선수들의 복장은 매우 독특하다. 상의는 '탁덕격'(卓德格) 씨름복을 착용하고 허리에는 '책일포격'(策日布格) 앞치마를 두르며 하의는 혈명한 '반택록'(班泽勒) 바지를 입고 발에는 두꺼운 가죽 부츠를 신는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목에 걸치는 '장가'(将嘎, 몽골식 씨름의 목걸이)이다. 알사맹(阿拉善盟) 민족씨름협회 주석 도맹나생(图孟那生)은 "장가 우의 색띠수는 선수의 등급을 나타내는데 챔피언을 차지할 때마다 하나씩 늘어간다. 이는 부호 고수의 상징으로서 젊은 부호 선수에게도 전수될 수 있어 영예의 계승과 후배에 대한 격려가 된다."고 말했다. 2006년, 몽골족의 전통 씨름인 부호가 제 1진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대표 항목 목록에 등재되었다. 이 영광의 리면에는 묵묵히 전통을 지켜오고 있는 많은 전승인들이 있다. 샤리보열식(沙力搏尔式) 씨름(부호의 분파)의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대표 전승인 알라등올라(阿拉腾乌拉)는 부모 세대의 영향을 받아 어린시절부터 부호와 인연을 맺기 시작했다. 2003년, 내몽골자치구 알사맹 알사우기의 정령위원으로 활동했던 그는 전통 기예가 직면한 전승 위기를 깊이 인식하고 샤리보열식 씨름의 발굴 및 보호를 위한 제안을 최초로 제출했다. 이후 몇년간 그는 힘겨운 현장 탐방을 이어갔다. "사람들을 찾으러 외딴 목장지역

으로 갈 때는 때때로 말을 타거나 산속을 걸어야 했습니다. 겨울에는 차가 들어갈 수 없고 여름에는 비에 길에 빠져 도로로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알라등올라는 신강, 청해, 감숙 등지를 누비며 200여명을 찾아 20만자에 이르는 1차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했다. 이는 샤리보열식 씨름의 전승에 중요한 력사적 자료로 남겨되었다. 오늘날 부호의 전승 계보에는 오랜 경험을 쌓은 베테랑과 활기찬 젊은 선수들이 함께하고 있다. 올해 17세인 경다맹은 최근 마무리된 '2025 알사 나다무' 부호 경기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훈련 시절을 회상하며 경다맹은 깊은 감회를 조용히 표현했다. "훈련중 열심히 하다 보니 자주 넘어지고 때로는 정말 아파서 포기하고 싶기도 했지만 이를 악물고 견뎌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전통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경다맹의 확고한 의지가 부호의 전승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오늘날 경기장에서는 여성 부호 선수들의 모습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부호 선수 아라거(阿拉格)는 "현재 여성 부호 선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젊은 세대와 어린이들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호 경기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경기에서 자신의 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남자 삼예'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발전하고 있는 부호는 그 포용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초원 스포츠의 매력을 느끼도록 하고 있다. 알라등올라는 부호의 미래에 기대감으로 가득차 있었다. 2021년, 그는 중소학교 학생들을 위해 특별히 《샤리보열식 씨름 입문》 교재를 편찬하였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이 부호의 력사와 기술을 이해하고 이 힘찬 스포츠에 대한 사랑을 키우기를 희망하고 있다. "부호는 몽골족의 우수한 문화를 담고 있으며 끈질김과 불굴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이는 또한 어려움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신을 여러 민족 인민들에게 전하고 특히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입니다." 경기장에서 부호 선수들의 접점을 바라보며 알라등올라는 미소를 지은 채 말했다. / 중국신문넷

사천 향성의 '백색관례', 세대를 잇는 전통 의식

가을에 접어든 9월, 사천성 갈제장족자치주 향성현 청덕진 중덕촌의 주민 칠비는 일년에 한번 찾아오는 '특별한 날'을 맞이했다. 이날 그는 자신의 백장방(白藏房, 백색으로 된 전통 가옥)에서 '백색관례'(白色灌礼)를 치렀다. 중국 상그릴라 생태관광구의 핵심 지역에 위치한 향성현에는 총 12개의 전통 마을에 6,000여채에 이르는 백장방이 분포되어 있어 전국에서 가장 큰 백장방 건축군을 보유하고 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하나하나의 하얀 백장방들이 마치 산골짜기에 흩뿌려진 진주처럼 하얗고 성스러운 모습을 드러낸다. 백장방은 외관상 네모반듯하고 고풍스러운데 일반적으로 2~3층으로 지어졌다. 문과 창문은 정교하게 조각되어있고 거기에 선명하고도 화려한 채색이 더해진다. 문틀과 처마아래, 중앙 기둥에는 종종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의 비단 장식을 걸어 행운을 상징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런 전통 가옥의 하얀 벽은 도로로 칠한 것이 아니다. 현지 주민들은 산에서 캐온 백악토(白垩土, 칠하는 데 쓰는 흙)에 물을 섞어 걸죽한 액체로 만든 후 이를 그릇에 담아 벽 위에서 천천히 흘러내리게 하여 벽면



을 하얗게 한다. 매년 전소절(传召节) 전후로 당시 주민들은 이 흰 액체를 벽에 한번씩 바르는데 이는 미관을 유지해줄 뿐만 아니라 비가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도 한다. 대대로 이어져온 이 의식은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의미가 승화되어 '백색관례'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른아침, 61세의 칠비는 장족 전통 의상을 입었다. 그의 안해 목요태 또한 당시 여성들의 가장 특징적이며 성대한 전통 의상인 '풍장'(疯装)을 완전히 갖춰입었다. 이들 부부는 이렇게 성대한 차림으로 '백색관례'의 중요성을 표현하고자 했다. 가옥의 지붕에 올라간 칠비와 목

요태 부부는 사전에 준비한 백악토를 통에 담고 적당량의 물을 부어 혼합했다. 이어 돌은 하얀 진흙물을 그릇에 담아 벽면을 따라 천천히 부었다. 목요태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이웃들을 불러 올해 집의 '백색관례'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해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 "이 집은 우리의 보배입니다. 우리처럼 백장방에 사는 사람들은 매년 한번씩 '백색관례'를 진행합니다. 의식을 마치면 다음해가 더욱 좋아집니다." 칠비는 이렇게 말하면서 한차례 완전한 '백색관례'는 보통 며칠이 걸리며 바쁠 경우 친척과 친구들이 서

로 도움을 주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향성(乡城) 문화에서 '백색관례'는 행운과 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지혜를 깨닫게 한다'는 뜻과 유사한 상징성을 갖고 있다. 당지에서는 이 전통을 바탕으로 여러차례 '백색관례축제'를 개최하여 전통 문화가 한층 더 '의식감'을 갖추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백장방 문화의 고향'이라는 브랜드가 더욱 빛나게 했다.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일부 가정에서는 매년 진행되는 '백색관례'에 분사기, 교반기 등과 같은 여러 기계장비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산에서 채취해야 하는 백악토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람들도 생겨나 전체 과정이 상대적으로 수월해졌다. 그러나 대다수의 가정들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이미 습관이 되어 매년 한번씩(백색관례)를 치러야 합니다. 우리 집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지." 올해 49세인 중덕촌 주민 웅초합이 볼 때 이는 빠르고 편리함을 추구할 필요가 없는 과정이다. 백장방은 대대손손 향성 사람들을 키워왔고 향성 사람들도 해마다 이 몸과 마음의 안식처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그는 표했다. / 중국신문넷

富强民主文明和谐
自由平等公正法治
爱国敬业诚信友善

图说 我们的价值观

中华有福 助人是福

天津大郑剪纸

中宣部宣教局 中国文明网